

봄날, 꽃잎 한장의 기도로 전네는 따스한 위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꽃잎 한 장처럼

이해인 수녀 지음

올리베라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이며 첫 서원 때 받은 수도명이 '클라우디아'다. 지금은 '넓고 어진 바다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뜻을 담은 이름처럼 부산 바닷가 수녀원에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바로 이해인 수녀다.

많은 독자들은 오랫동안 이해인 수녀의 글을 읽으며 위안을 받고 있다. 시를 가운데는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사랑을 받는 작품이 적지 않다.

올해 만 77세 희수(喜壽)를 맞은 이해인 수녀. 첫 서원을 한 지 54주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선택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처럼 감사, 행복, 사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해인 수녀가 봄을 알리는 꽃과 같은 한 권의 책을 펴냈다. '꽃잎 한 장처럼'은 신작 시 30여 편이 수록된 위로의 시 편지다.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이해인 수녀의 시 편지'라는 부제처럼,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시와 글이 담겨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더욱이 경제난으로 삶이 팍팍해진 이들은 부지기수다.

이런 때 한줄기 빛과도 같은 위로의 말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그 일어섬은 봄이며, 봄은 꽃으로 수렴된다. 이해인 수녀가 펴낸 책 제목에는 유독 '꽃'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다.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등이 그렇다.

아마도 '꽃'은 생명, 꿈, 희망, 마음 등을 포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책의 제목이 된 표제지 '꽃잎 한 장처럼'에도 '꽃잎 한 장의 무게로/ 꽃잎 한 장의 기도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는 이들에게 위안을 건네는 저자의 따스한 음성이 느껴진다.

더러 이해인 수녀는 나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나지막한 음성으로 건넨다. 나무는 침묵, 기다

림, 인내라는 덕목을 거느린 존재다. 가벼운 말과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행실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에서 나무가 보여주는 덕성은 무엇에 비할 바 없는 참다운 지혜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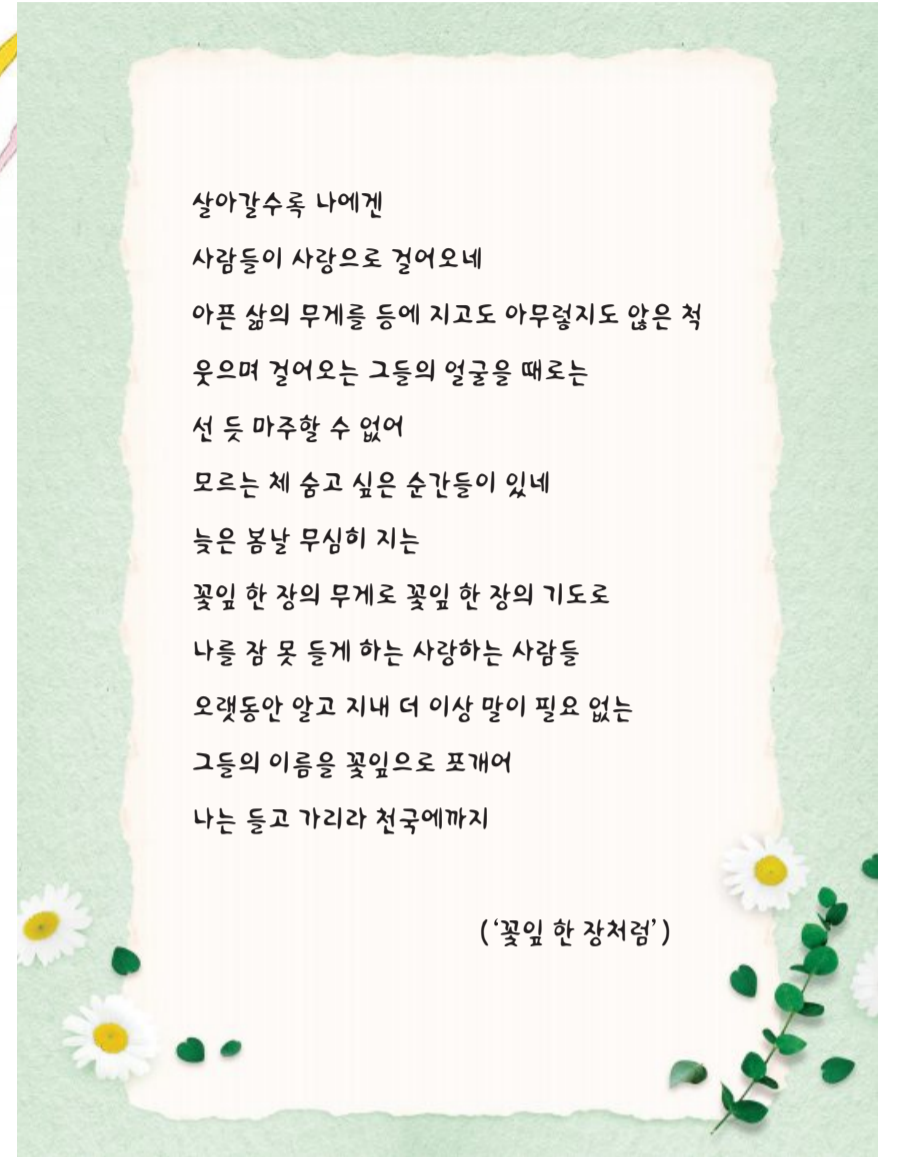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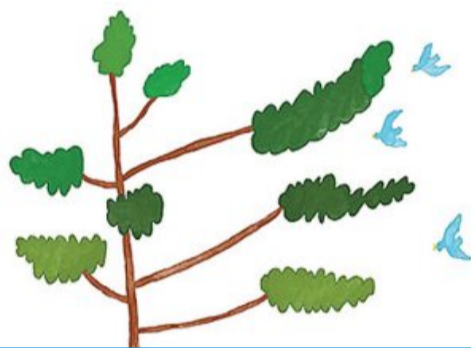
"서로의 거리를 두어야/ 잘 보이고/ 침묵을 잘해야/ 할 말이 떠오릅니다"의 표현은 침묵의 힘을 이야기하며 "남의 말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에서는 지혜의 미덕을 풀어낸다.

한편으로 저자는 죽음에 대한 사유도 언급한다. 힘들고 우울한 상황 탓인지 몰라도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살아 있음 그 자체로 얻는 기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

오늘이 힘겨운 사람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행복이란 것은 거창한 데에만 있지 않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저자의 사유와 삶이 고스란히 담긴 글 외에 공동체를 향한 기원, 세월호 생존자 격려의 글, 김대건 신부와 구상 시인, 박완서 작가, 장영희 교수를 기리는 글 등 다양한 기념사와 글들도 만날 수 있다.

한편 나태주 시인은 추천사에서 "당신의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많은 위로와 축복과 치유의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음에 없는 소리

김지연 지음

신형철 평론가는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문장을 정확히 제자리에 놓을 줄 알고 그 문장들로 상황을 내면하는 데 어김없이 성공한다"고 평했으며 김금희 작가는 "소설의 구조가 응모자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했다"고 언급했다.

바로 지난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 당선작으로 결정된 김지연의 소설에 대한 상찬이다. 사실 문학동네신인상은 문정들이라면 육심을 내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다. 이런 문학상 심사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잘 쓴 소설"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서로 다른 취향을 지닌 심사위원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지닌 미덕이 컸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김지연 작가의 첫 소설집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자신 안에 많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서정적이면서도 터프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여운이 있다. 작품집에는 2022년 젊은작가상 수상작 '공원에서', 2021년 젊은작가상 수상작 '사랑하는 일' 등 모두 9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표제작 '마음에 없는 소리'는 지방에 내려가거나 그곳에서 거주하는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얽히고설킨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의 관계를 작가의 담백한 문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요즘 나에게 있어 글쓰기란 영영 우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왕이면 은 힘을 다해 남김없이 잘 울고 싶다. 훌거분한 마음으로 남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선가 혼자 우는 사람이 없는지도 돌아보고 싶다. 누구도 혼자 울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부희령 옮김

1845년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2년 여 동안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0)는 자연과 함께한 삶을 살았던 작가이자 사상가, 철학자였다.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던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월든'이라는 책을 썼다. '세계 문학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책'으로 평가받는 '월든'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다. 그의 사상과 사유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가르침으로 존재한다.

소로는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도세 납부를 거부하다 투옥됐으며 당시 경험을 기록한 '시민불복종'은 간디의 비폭력주의 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소로의 저서인 '월든', '시민불복종', '일기' 등 주요 작품에서 발췌한 빛나는 명문장을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 발간됐다.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 노르드담대 영어과 교수이자 소로 연구 권위자인 로라 대소 웰스가 각 작품에서 중요한 문장을 발췌해 엮었다.

"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라. 봄과 함께 초목으로 자라고 가을과 함께 황금빛으로 익어라", "집이나 땅처럼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의 주시, 진정한 부동산은 우리가 내내 쌓아 온 사유의 양이다" 등과 같은 문장은 현대인들에게 목직함 메시지를 던져준다.

소로는 성장지상주의, 이기와 탐욕에 물든 금권관능주의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보석 같은 문장과 어울린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책을 읽는 이에게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쯤 곱씹어보게 한다.



〈니케북스·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골목길 역사산책 한국사편

최석호 지음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룹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같은 K-팝, K-드라마 콘텐츠들은 국력을 높이고 한국인의 호감도를 급상승시키는 요인들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효과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은 사람들과 한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늘었다. 한국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가?

고려대 사회학과에서 여가사회학을 공부하고 한국레저경영 연구소를 설립, 여기문화사와 문명화과정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최석호가 최근 펴낸 '골목길 역사산책 한국사편'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다.

책은 '골목길 역사산책'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며 앞서 저자는 '서울편'과 '개항도시편'을 통해 서울의 골목길 여정 등을 들려준 바 있다.

그는 남춘, 강릉, 화순, 경주를 방문해 골목길을 거닐며 우리 역사를 살펴봤다. 청계천과 남산 사이를 뜻하는 남춘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을 되찾으려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짚는다. 남춘길은 독립 투쟁의 길이었으며, 후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됐다.

강릉 골목길 사이로는 조선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집인 오죽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경포 생태습지, 두부로 유명한 초당마을, 관동팔경에 얽힌 이야기에 재미가 쏠쏠하다.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는 천마총, 황남대총, 첨성대 등 신라 역사를, 화순의 사찰인 운주사 산책길에서는 고려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동산 오층석탑, 서산 칠성바위 등도 살펴본다.



〈가디언·1만8000원〉

/전재재 기자 ejf62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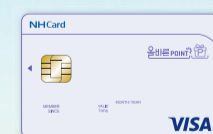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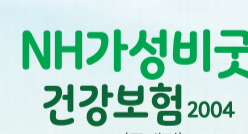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돈드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